

# 현대불교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천원으로  
내달리는 빅만금리!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장로시대를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안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영예회장·노대행/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희/ 인쇄인 김규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광고국 737-0692/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팔묵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형은 괴로움을 가져온다.  
 (육바라밀경)

### 법회 안내

- 거림정사포교원(02)379-6940
- 인양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교정암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건경암법회 매월 마지막 주 일 오전10시(30분)
- 여의도 포교원 (02)784-9136
- 일원도포교원 일 오전10시(30분)  
경인공부 특·일 오전10시(30분)  
부산 관음사 (051)205-0069
- 어산도포교원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암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보통산법회 1·3주 일 오후2시  
함양암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금강경암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 대전 원선사(042)523-0813
- 거사법회 첫째주 일 오후6시  
대원암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동부암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통해 심학사 (0394)31-4082
- 일원도포교원 매월 22일 오전11시  
중·고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산도포교원 매주 일 오전10시  
관주 대광사(062)222-4613
- 초삼암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중·고동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어산도포교원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해진선원 (032)893-3326
- 초하암법회 일(음) 오전10시(30분)  
보통암법회 19일(음) 오전10시(30분)  
어산도포교원 매주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범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구독신청부 운영지소  
305-4164

우편국 계좌번호  
0100-11-0255243

## “종토세 면제 긍정 검토”

### 김대중 대통령 월주총무원장과의 담화 밝혀 교계 비과세관철 다각 모색

조계종이 종토세·토초세 등 전통사찰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철을 위해 총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교계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사담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단독오찬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종토세 등 전통사찰 토지 비과세를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토세 면제·문화재관할로 공익임장 등 공동정수 등 불교계 현안을 담은 대 정부 건 의서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불교계의 종토세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스님은 이틀전인 지난 4 일에는 종토세 협의를 위한 내

무부 장관 면담을 가졌고 지난 7일엔 기획실장 현용스님이 내 무부 담당자를 만나 교계의 부과된 토지관련세금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관련부처 장관 면담 외에도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자로 각각 문화부장관, 내 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종합토지세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수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전통사찰이 보유한 부동산은 무기목적성이 아니며 처분 허가권이 정부에 있으므로 무기목적에 이용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전통사찰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지난달 29일 원로 회의에서 “정부가 전통사찰 토지 비과세의 불교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문과세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축출 등을 강행하리”고 결의한 바 있으며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로 토지관련 세금 면제 촉구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토지세금 면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으나 사찰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비과세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교계와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조계종에 제출된 ‘1995년 종합토지세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김영민 공인회계사 작성)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종토세 개정안은 사찰 경내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종교단체의 주거용 부속토지에 대한 0.3%과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0.1% 일괄과세는 불교계 입장에서 볼 때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현 과세와 비교해 오히려 종



◇ 지난 6일 청와대서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단독오찬회동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사찰 토지세 금 비과세 건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람료 자율화·예치금제 폐지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경미한 개·보수 자유

내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금액 결정이 자율화되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공동정수금이 폐지된다. 또한 사찰 배수로나 도난경보시설 보수, 화강질 문막·천정 수리, 잔디식재 등과 표시 안내판 경고판 등의 개·보수가 자유롭게 된다.

관람료 금액 자율화, 예치금제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획일적이었던 문화재의 표식·안내판·경고판

관람료 양식도 문화재 특성에 따라 다양화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람료 예치금 제도 폐지에 따라 관람료 예치금을 종단 공동봉사와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당해사찰 불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화재를 보호하는 도난경보시설이나 문막 천정 배수로 등 사찰의 경미한 부분의 보수에도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 고쳐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확실적이고 일괄적이었던 문화재의 표식·안내판·경고판

의 규격·형태도 자율화되고 안내판의 분간 감소제도가 폐지에 따라 사찰과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불교적 정서가 담긴 예술적인 안내·경고판이 나올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객 포교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수익사업 또한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람료 관련법”을 제정해 관람료 책정 및 수입의 사용·관리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성보전사관 국고지원

### 해인사등 8곳 40억원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 예산 40억원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 동산 문화재 9점 이상을 소장한 조계사 금산사 수덕사 월정사 해인사 마곡사 용주사 선운사등 8개 본사에 각 5억원 국고가 보조돼 지방비 5억원 사찰부담 5억원등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1백평 규모의 사찰유물(성보) 전시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8개 사찰 주지회의를 소집,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정동산문화재를 8점 이하 소장한 여타 본사에게는 문화재를 보관할 금고가 지급된다.



## 팔만대장경·석굴암·종묘 세계문화유산 등록

유네스코 신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위원회는 베를린에서 제119차 총회를 열고 지난 6일 우리 문화재 3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했다. 지정된 문화재는 석굴암(국보 제24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82호)과 판교(국보 제82호·사진), 종묘(사적 제126호)등 3건, 세계문화 유산등록을 기념하여 해인사와 불국사는 19일 축하법회를 열고 법패,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관련기사 14면>

### 목어

우리나라의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판교, 그리고 종묘가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공식 등록됐다. 이들 문화재는 인류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문화유산의 자격을 공인받은 것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보호운동이 펼쳐지며, 보존과 관리에 세계 전문가들의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비로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명실상부하

### 조상 '덕' 후손 '뉘'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부끄러움을 감출수 없다. 당장, 세계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석굴암이 서있고 1천년 신라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역사 도시 경주만 하더라도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밀려

문화정책은 뒷전으로 비쳐져왔기 때문이다. 고속철 관통과 경마장 설치로 발생될 눈앞의 산술적 이익에 천년문화의 파괴도 감수할 태세였던 것도 우리 문화정책의 아픈 현실이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반만년 문화민족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가르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세계에 알리는 데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서비스-①

## “이거, 어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 안내 서비스**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일선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 여행 안내 서비스**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안내, 출입국비자안내
- 사고처리안내 서비스**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서비스입니다.

휴일 - 3시간의 비행중에 홍콩에 도착한 김 대리 - 압국 수속도 미치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일이 시작되려는 순간,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짐은 나오질 않고, 게다가 속이 꼭 막히고 머리도 뚱도는 게 급해왔는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뭘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하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어요?..."

■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용법

개인연금보험,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카드의 전화번호를 돌려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758-7334~6

SAMSUNG 삼성화재